

필수인력 남겼다지만...환자들 “의료 섣다운 될라” 불안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 파업 현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29일 오전 조선대병원 1층 로비는 어수선했다.

오전 10시 조합원이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난 뒤 간호사들 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삼삼오오 모여 ‘의료 섣다운’을 우려했다.

노조원이 총파업 출정식을 환자와 보호자가 드나드는 1층 로비에서 여는 바람에 공간이 좁아진 접수처에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기 중이던 한 남성은 “접수 번호판이 안보이니 비켜라. 환자를 불편하게까지 하면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환자와 가족은 노조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조선대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노조원이 “병원이 영양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면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하는 상황이며 결혼한 영양사는 가정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일부 환자들은 안타깝게 쳐다봤다.

하지만 조선대병원 곳곳에서 만난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빠진 공간을 메워왔던 간호사들마저 파업을 하고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소식에 걱정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내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는 최모(65)씨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건 간호사들인데 아무리 필수인력을 남기고 파업을 한다면 인력이

접수 대기시간 연장 등 불편 호소 “왜 이럴 때 아플까” 한숨 짓기도 추석 앞두고 의료공백 올까 우려 한편에선 “간호사 고충 이해한다”

부족하게 되면 응급환자들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병원비는 그대로인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뇌출혈 치료를 받기 위해 순창에서 온 김병초(80)씨도 “고향에 큰 병원이 없어 광주까지 왔는데, 파업 소식에 믿을 구석이 없어지는 기분”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미 공백이 현실이 됐다는 환자들의 고충담도 나오고 있다.

안과 치료를 받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병원을 찾은 김순덕(여·90)씨는 “접수처 인력이 줄어들어서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다렸다”면서 “벌써부터 간호사들이 빠진 공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 전 조선대병원에서 남편이 전립선 수술을 했다는 유모(여·70)씨는 “의사와 간호사가 파업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막상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다 보니 흑여 제대 치료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서 “특히 추석이 다치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명절이라 인력도 많이 줄어들 텐데 크게 아프기라도 할까 조마조마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일부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서는 간호사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병원과 정부가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간호사들의 희생을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 지부가 총파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흥에서 척추 측만증 수술을 받으러 온 이모(여·66) 씨의 보호자 한모(41)씨는 “자식 같은 간호사들이 로비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파업도 그들의 권리인 만큼 응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과 병원을 찾은 김연화(여·84) 씨도 “손녀 두

명이 전남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간호사들이 꼭 손녀 같고, 의사를 대신 빈 자리를 채웠던 걸 생각하면 이번 파업을 지지해주고 싶다”면서 “환자들 불편을 막기위해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병원이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유방암 수술을 받은 문모(여·44)씨는 “의사 파업에 이어 간호사들까지 파업을 선언하니 ‘왜 하필 이럴 때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불안하다”

면서 “하지만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기계처럼 소모되지만 한다면 결국 병원 서비스가 저하돼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들을 위해 인력을 더 채용하든지 돈을 더 주든지 해야한다”고 노조의 편을 들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관련 현직 치안감 실형

광주경찰청장 재임 때 금품 받아 징역 1년 6월 선고...법정구속

사건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제3차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승진 청탁자 B(55) 경감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치안감에 금품을 제공한 사건브로커 성모(63)씨는 제3차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성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은 현금 1000만원은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이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성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B씨와 성씨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치안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성씨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은 맞지만 A씨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성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와 B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의 여죄 또는 지인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백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평소 친분이 깊은 치안감을 무고하면서까지 허위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고위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수년간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으며 부적절한 교류를 이어오다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무궁화 한 개에 1000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등 경찰조직의 매관매직은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배후자 무기징역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고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B

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증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의 차 안에서 서로 허벅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달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가짜 빚을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빚을 갚으라며 B씨와 C씨에게 수시로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실제 없는 분청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육체·경제적으로 착취해 노예처럼 부려 숨겨거나 다치게 했다”면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아파트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자 ‘흥기 난동’

건설사무소 찾아가 협박한 40대 입건...인명피해는 없어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남성이 건설 사무소를 찾아가 흥기난동을 벌였다.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광

주시 북구 한 건설사무소를 찾아가 흥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

포했다.

A씨는 해당 건설사 아파트 입주인으로 건설사에서 자금 부족으로 1억 6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자 흥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몇 분간 위협을 이어가다 스스로 현장을 떠났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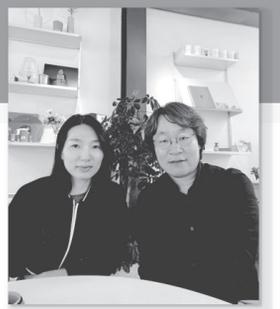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